

Oneness 고전 12:1-11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원네스이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답이 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사단이 자주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할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내 인생을 정복하고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가자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근본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확실히 내게 언약이 되어야 한다. 믿으면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누리면 하나가 된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진짜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누리져야 하고 발견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응답 받는다. 정복한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원네스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지난 주에도, 그 전 주에도, 성경에 가득 차 있다. 성경이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대에 대한 계획이 역사의 중심이었다. 항상 그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 그것이 이 세상에 역사가 있는 이유이다. 해가 뜨는 이유이다. 이 일이 끝나면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다. 아주 근본적인 답이다. 그러면 여기에만 들어가면 된다. 아무도 막을수 없고 변경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적인 계획이다. 그러므로 이 계획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전부다 시대적인 인생을 살았다. 예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개인의 말씀을 들리기 바란다. 성경이 증거하기를 성경 인물이 전부 그 시대의 역사의 중심이었다. 변두리에서 살고 싶은가? 왜 그렇게 살겠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살아야 한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다. 다른 것 안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된다. 그러면 이 일을 같이 할 사람이 모인다. 그래서 그 그룹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다. 사도바울 주위에 몰려 들었던 제자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복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는 산업도 있고 분야들이 많은데, 그 분야에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이 같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복하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어김없이 이것 하겠다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거냐는 것이다. 질문이다. 지구의 역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지구를 세울수도 있고 깨버릴수도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아무도 막을수 없고 실패도 없다.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 절대 실패 할수 없는 일이 있나? 있다면 무조건 그것을 해야 한다. 말씀을 하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안되는 일도 없고 바뀌는 일도 없고 막을자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다. 과거형으로 표현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거형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이다. 내가 말하면 막을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도 안 바꾸고. 그래서 반드시 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이미 말한 것이다. 부활메시지 4개가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절대 계획임이 발견되기 바란다. 눈에 들어오기 바란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인생을 살면 성경적 응답을 받는다. 이 안으로 들어오기 바란다.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가? 기도 하면 된다. 기도를 안하고 잊어버리는 병을 고쳐야 한다. 기도하라.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답을 얻은 것이다.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돈이 안되니까 소용없다 하지만 결과는 돈이 전부다 아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눈이 먼저 열려야 한다. 눈이 열리면 하나님과 통한다. 원네스가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이 시대의 소원의 문이 열린다. 결국 정복한다. 완전 역사를 새로 써버리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

하고 뜻이 통한 것이다. 어떤가? 믿을 것이다. 다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과 뜻이 통했는가? 안 통했으면 믿음으로 하면되는데 몸이 따로 노는 것이다. 이 병을 고쳐야 한다. 영 뿐 아니라 몸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진짜 인줄 알고 역사가 시작된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 했다. 진짜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그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급하게 불렀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지 알겠다고 하였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었나? 그게 행동으로 진짜 나타날 정도로 믿어졌던 사람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를 죽여도 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해버렸다. 그래서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 경험으로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을때에는 큰 응답 없었다. 그런데 너가 나와 통했나? 전체적 기도 응답, 정복의 응답을 누릴수 있는 요건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다. 근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의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복하고 살리는 인생이 될 준비가 된 것이다. 이게 원네스이다. 맘대로 안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준 것이다. 메시지를 예사로 들으면 안된다. 듣고 지나가버리면 평생 제자리걸음이다. 영적으로 통하면 육신적으로도 되는 것이다. 내가 마음을 쏟고 메시지를 따라오면 되는 것이다. 돈드는 것이 아니다. 진짜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다. 공부도 아니다. 메시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1. 원네스

본문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한다. 나중에 보면 설명이 다 나오는데, 핵심은 다 한분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직분이 있다. 왜냐면 주님을 섬기려고.. 주는 같으며라고 하였다. 6절은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것이다.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 사역은 많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받은 직분, 그리고 사역이 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다. 말씀을 읽을 때, 아주 깊은 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 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파고 드는 사람도 있다. 물론 둘 다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다.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10절에, 능력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을 줬다는 것이다. 다양하게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으로 되어 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어야 하고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도 읽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예를 들어서 지체, 눈, 코, 손, 발등, 다 모든 것이 한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코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다 다르다. 그러나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되는 정신으로 살라는 것이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형제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해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모든 은사나 사역을 한 성령님이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몸과 같아서 각 지체가 있지만 전부가 하나가 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이것을 사도바울이 신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한 교회가 되어서, 이런 은사와 직분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역시 사도 바울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혼자 생각에 전보다 내가 더 영적으로 눈을 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스도의 약속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신령함이라는 것이다. 그 모든 지체에 각 각 직분을 주고 은사를 줘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신령함.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육신의 모든 일은 영적인 눈에 달렸다.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것은 영적인 것 뿐이고 육신적인 것은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한 이 눈으로 교회를 본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에 하나님과 얼마나 통했겠나. 얼마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도 바울을 기뻐했겠는가하는 생각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원이 된 사람이 너무나 적어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에게는 좋지만 모든 것이 신령한 것으로 보는 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통했겠는가? 사람이 다른 것이다. 사람이 다르면 그 결과가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사람이 달라야 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사람이 달라야 한다. 인간은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다. 성격도 다르고 목적이나 이유도 다 다르다.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국가나 민족도 다 다르다. 이런 다양함 속에서 살아가는 데 미국은 특히 개인을 존중하는 나라라서 더 다양하다. 성경을 예를 들어 말하면 성경은 이것이라고 말한 것이 있다. 그것 아니면 틀린 것이다. 한 개뿐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각자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가장 쉬운 것,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것이다. 그것 외에는 없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허물려고 대든다. 인간이 잘나게 있는가? 다 죽어야 한다. 사실은. 그런데 그놈의 인간을 그렇게 높인다. 그게 범위를 너무 벗어나서 가서는 안될 자리까지 범접을 해가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악하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바로 해야 하고, 안그러면 미국에게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미국을 정복하자라는 것이다. 그래야 미국을 살리니까. 미국하고 잘 지내야 미국을 살리는가? 그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니다. 이런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 미국은 특히 더 그렇다. 이것이 적응 안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런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가 되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본래부터 하나였다는 것이다. 은사도, 직분도 다 하나였다는 것이다.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 각자 독특한 영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생각을 해보면 한 언약의 표 안에서 하나 못 될 것도 없다.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기회가 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령인도를 받는 과정도 된다. 남을 인정하지 못하면 혼자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안된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빠져야 할 때도 있다. 사도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갈라졌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 시대의 전세계의 대표적인 사도 둘이었다. 이처럼 끝까지 양보하지 못할 선도 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안해도 되는 원네스를 하다가 죽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이해하고 수용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어떤 문제도 복음은 초월한다. 그 만큼 눈이 열리고 답이 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만큼 응답 받아냈다는 것이다. 받은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넉넉히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좀더 크게 더 멀리 바라보고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눈 앞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회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회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섬겨야 한다. 당연히 살려야 한다. 그러나 눈은 저 땅 끝에 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어느 누가 교회를 살리겠다고 할수 있는가? 헌신을 할 뿐이다. 미국과 남미 땅끝까지 가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메시지이다. 교회도 하나되고 모든 가정도 하나되기 바란다. 그리고 부부와 자녀와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된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내가 살면 사단이 역사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란다.

2. 더 큰 하나됨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됨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하나되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다. 성도를 사랑하고 수용하고 함께 가는 것 너무 귀하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됨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각자 받은 사명이다. 사명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사명이다. 즉사로 세상을 이길 힘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다. 사명은 전부 그리스도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안 죽는다.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 힘을 잃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 사명은 세상을 뛰어 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땅에서 일어난 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사명이 아니다. 우리는 답을 가진 자들이다. 이 답은 먼저는 나를 살린다. 그리고 이 답은 세상을 살린다. 이 답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 지금 어려울수 있다.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안 풀릴수도 있다. 세상에 답이 있는가? 그러면 그 답을 쓰라. 그 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으로 안되는 것도 있다. 항상 성경에 그 답이 있다. 이 답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을 나중에 누구든지 고백하게 된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드디어 정복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이 언약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피를 뱀의 머리를 깨는 언약으로 잡는 사람은 응답 받게 되어 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뭐가? 이 언약의 피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반복을 하는 것이다. 은혜가 안될 수도 있다. 그래도 한 것은 한 것이다. 이유가 어쨌든 안하면 안한 것이다. 반복하면 반드시 그 날이 온다. 영적으로만 은혜 되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도 문이 열리고 응답이 온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증인 안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육신적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대로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안되는줄 알고 옆길로 갔지만 결국 약속대로 되었다.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일들중의 하나이다.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내가 애굽을 칠것이라고 하였다. 그 날 밤에 애굽은 망했고 이스라엘은 해방되었다. 약속대로였다.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약속하셨다. 지금도 계속 깨고 계신다. 우리도 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 우리는 이언약 안에서 원네스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게 들어오고 언약으로 잡고 영적으로 통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원네스이다. 마음과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되고 그 소원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인생중에 나타나는 것이다. 반드시 나타나고 막는 법이 없고, 안되는 법이 없다. 인생의 모든 문이 다 열린다. 이유는 천국열쇠를 주겠다고 하였으니까. 땅에서 뭐든지 매든지 풀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수 없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길수 없다.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이다. 들어와서 내것이 되면 예사가 아니다. 그 약속을 잡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되기 바란다. 성도들과의 원네스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언약으로 통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백배의 인생 될 것이고 천년의 응답받을 것이다. 진짜로 미국을 정복할수도 있다. 정말로 남미의 곳곳에 우리 대신 보낼 제자들을 세울수 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는다. 우리는 미국과 남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그 흐름을 새로 쓰는 축복을 주실 줄 믿는다. 능히 할수 있고 반드시 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 받기를 바란다.